

##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최 수 경  
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전임강사

### The Effect of the Interval and Color of a Checked Pattern, and of the Perceiver's Gender, on Clothing Image

Su-Koung Choi

Full-time Lecturer, Dept. of Beauty & Care, Masan College  
(투고일: 2010. 2. 22, 심사(수정)일: 2010. 4. 12, 개재확정일: 2010. 5. 11)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r's gender, interval and color of checked pattern on clothing image.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were 16 color pictures, in which the perceiver's gender, interval(0.5cm, 1.5cm, 3.5cm, 5.5cm), and color(red, yellow, blue, purple) were manipulated. The 7-point scale was used for evaluation of clothing image. Data were obtained from 192 male college students and 192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Gwangju, Jinju, and Masan on December 2009. For data analysis, ANOVA and Duncan-test were used by using SPSS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lothing image according to interval and color of checked pattern consisted of five dimensions of attractiveness, appeal, warmness, modesty, and freshness. Perceiver's gender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appeal, modesty, and freshness. Interval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appeal, warmness, modesty, and freshness. Also, interaction effects of Perceiver's gender and interval on appeal and freshness were found. Interaction effects of Perceiver's gender and color on appeal were found.

Key words: clothing image(의복이미지), checked pattern(체크무늬), perceiver's gender(지각자 성별), interval(간격), color(색상)

## I. 서론

의복은 상대방에게 개인의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의복의 구성요소인 형태, 색채, 무늬, 재질 등은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무늬는 색을 지닌 선, 공간, 형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패션디자인 요소로써 물리적, 심리적 효과는 물론 무늬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직물디자인이나 의류디자인 분야에서 이미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sup>1)</sup>

무늬가 있는 표면은 무늬가 없는 표면에 비해서 눈을 자극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sup>2)</sup> 미적쾌감을 야기시킨다. 무늬 중 상징성과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무늬의 모티브로는 스트라이프, 도트, 체크와 같은 기하학적 문양을 들 수 있다.<sup>3)</sup> 특히 체크무늬는 예부터 지속적이고 전통적인 패턴으로 별로 유행을 타지 않아 의복의 무늬로 변함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체크무늬는 배색과 그 간격, 직물의 성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셔츠나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바지, 멀플러, 넥타이 등 다양한 용도의 의복디자인에 이용되고 있다.<sup>4)(5)</sup>

무늬는 선과 형,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는 공간이 크기와 면적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무늬의 시각적 효과는 무늬의 종류, 색, 배열, 표현 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지각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의해 달리 지각될 수 있다.<sup>6)(7)</sup>

지금까지 체크무늬에 관한 의복이미지의 연구들은 넥타이에 적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거나<sup>8)</sup> 여러 가지 문양 중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되어 의복이미지를 평가한 연구<sup>9)(10)(11)(12)</sup>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성별에 의한 지각자의 차이와 액세서리가 아닌 구체적인 의복으로 체크무늬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연구변인으로 설정하기가 용이하게 체크무늬의 간격을 일

정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쉽고 통일감을 줄 수 있는 색상<sup>13)</sup>으로 배색을 통제하여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의복디자인과 색채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미지 요인별로 이들 단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별과 무늬에 따른 의복이미지

의복이미지 평가는 같은 대상자라도 지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각자는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 요구, 기대가 다르고, 또한 독특한 과거 경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며, 지각하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sup>14)</sup>

이명희와 최유진(2007)<sup>15)</sup>은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남성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흰색, 회색, 하늘색 줄무늬 셔츠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남성성을 높게 보았고, 파란색 와이셔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남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여자는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가장 남성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현화와 박찬부<sup>16)</sup>의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성별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 평가에 영향을 미쳤고,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 단서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한 문주영과 강경자<sup>17)</sup>의 연구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 평가에 긍정적이었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활동성 차원에서 더 높게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영희<sup>18)</sup>의 연구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선호하는 남성복 문양은 가로줄문양이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선호하는 남성복 문양은 물방울과 양식적인 형태의 꽃문양으로 나타나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남성복 문양은 차이를 보였다.

이순임과 김재숙<sup>19)</sup>의 연구를 보면 성별에 따른 모시소재 문양의 이미지 지각은 품위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같은 소재를 보면서 느끼는 이미지를 남성이 여성보다 더 품위가 있다고 지각하였다.

이상에서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늬는 선, 색채, 재질을 모두 포함하는 독립적인 디자인이며, 무늬는 모티브(motif)와 패턴(pattern)으로 나누어진다. 모티브는 무늬를 이루는 기본단위의 형태이며, 패턴은 모티브가 모여서 이루는 무늬의 전반적인 형태를 말한다.<sup>20)</sup> 이러한 무늬는 장식적 효과와 함께 의복디자인 요소 중 하나로 중요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의복에서 무늬는 문양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박금옥<sup>21)</sup>은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에서 직물의 이미지를 품위성, 경직성, 경량성, 단정성, 복잡성 요인으로 분석하고, 직물의 무늬에 따라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양에 따른 소재의 감성 이미지를 연구한 이소라<sup>22)</sup>는 현시성, 매력성, 안락감, 온유성의 4가지 차원으로 요인 분석되었으며, 꽃문양은 다른 문양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게 지각된 반면 스트라이프는 비교적 매력적이고 안락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또한 현시성 차원에서 색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같은 문양이라도 색에 따라 평가되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소라와 김재숙<sup>23)</sup>의 연구에서 의복의 문양에 따른 감성 이미지 차원은 매력성, 현시성, 역능성으로 도출되었고, 스트라이프 문양이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로, 그 다음이 체크문양으로 나타나 문양의 종류에 따라 매력성 차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최은영<sup>24)</sup>은 격자무늬의 경우 무늬가 있을 때 날씬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자무늬의 크기가 커질수록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증가하여 격자의 크기에 따라 체형의 착시가 있음을 밝혔다.

이승현과 이경희<sup>25)</sup>의 연구에서 남성 캐주얼 무늬 셔츠의 이미지 포지셔닝을 보면 제1사분면은 어두운 색조, 복잡하거나 나이들어 보이는 스트라이프무늬, 체크무늬 셔츠의 느낌으로 표현되고, 제2사분면은 사실적 무늬, 방향변화와 무지의 조합, 화려한 색조, 독특한 무늬 등의 느낌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제3사분면은 밝고 화사한 사실적 무늬, 큰 체크, 복합무늬의 느낌으로, 제4분면은 밝고 무난하면서 고급스러운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의 느낌으로 표현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무늬의 종류에 따라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늬가 갖고 있는 색채와 그 크기도 의복디자인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각적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26)27)</sup>고 볼 수 있다.

## 2. 동일 색상 조합의 의복이미지

컬러는 한 가지 컬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서로 조합시킴으로써 패션 이미지를 좀 더 효과적이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조화시키는 것을 배색이라고 한다.

동일 색상 배색은 컬러가 동일하고 명도나 채도 차이에 따른 배색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클래식이나 모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알맞은 배색 방법이다.<sup>28)</sup>

현대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 성향을 연구한 권혜숙과 심은아<sup>29)</sup>는 다양한 색상 배합을 시도하기보다는 색상 배합이 비교적 용이하고 무난하면서도 조화를 쉽게 이를 수 있는 동일 색상 코디네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고, 톤 사용에 있어서도 강한 시각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의 색채조합 특성을 분석한 조민정<sup>30)</sup>의 연구에서 통일의 요소로는 색상을, 변화의 요소로는 톤을 많이 사용하며, 유사색상이나 대조색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톤 차이에 의한 대조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복에 사용된 은은한 톤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밝은 톤은 가볍고 명랑한 이미지로, 선명한 톤은 강렬한 이미지로, 어두운 톤은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채도에 의한 톤 변화보다 명도에 의한 톤 변화가 더 조화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주소현과 이경희<sup>31)</sup>의 연구를 보면 패션소재를 구성하는 색채와 재질 변인에 의한 이미지는 우아한, 편안한, 개성적인, 가벼운, 단순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색상과 톤은 패션소재의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톤은 색상보다 개성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강경자 외<sup>32)</sup>는 톤 온 톤 배색에 의한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젊음·활동성,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으로 도출하였고, 빨강 톤 온 톤 배색은 젊음·활동성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다크 톤 빨강 치마와 라이트 톤 저고리의 배색은 매력적인 이미지로, 비비드와 멀 및 다크 톤 치마는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현시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임지영과 강경자<sup>33)</sup>는 셔츠와 넥타이의 동일 색상 배색에 따른 인상을 평가한 결과 능력성, 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으로 요인 분석되었으며,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과 톤을 어떻게 배색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색상과 명도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의복에 있어서 동일 색상 배색은 조합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색이 가지는 톤에 의해 조화로운 배색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자극물을 선정하기 위해 원단시장과 의류시장을 조사한 결과 먼저 체크무늬를 가진 의복의 종류는 셔츠, 스커트, 바지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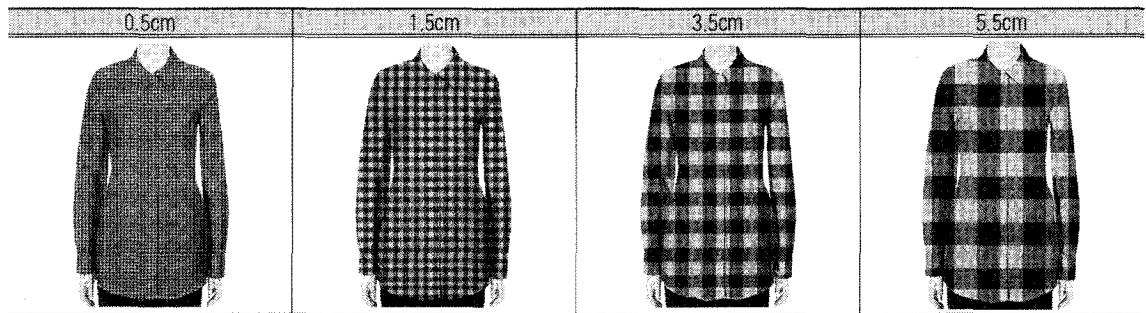
그중에서도 캐쥬얼 셔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크무늬의 배열을 보면 셔츠와 바지는 주로 식서방향으로 나타났고, 스커트와 넥타이는 사선방향으로 바이어스 재단이 대부분이었다. 체크무늬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배색과 간격이 조합된 베버리체크나 타탄체크 계열이 보편적으로 상품화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체크무늬이지만 조사시점에서 체크무늬의 종류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모두 동일한 간격을 지닌 블록형 체크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체크무늬의 소재는 면직물, 모직물, T/C혼방의 순서로 많았으며, 조직은 평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능직의 순이었다. 또한 체크무늬는 대부분 선염직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선염직물과 같은 효과를 가진 프린트직물도 있었다. 체크무늬의 배색은 재질을 다르게 한 단색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2색, 3색, 4색, 5색, 6색 이상 등으로 배색의 조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체크무늬의 배색은 모든 색을 한번에 다룰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sup>34) 35)</sup>와 의복 및 원단시장의 배색경향을 참고로 색상을 빨강, 노랑, 파랑, 보라로 설정하여 각각 라이트와 다크의 조합이 되도록 배색하였다. 체크무늬의 배열은 대부분 셔츠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식서방향임을 고려하여 식서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체크무늬의 간격은 시장성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기가 용이하게 체크무늬를 동일한 간격으로 조작하여 수직선과 수평선의 직각교차가 일정하게 정비례하는 0.5cm, 1.5cm, 3.5cm, 5.5cm가 되도록 하였다.

체크무늬 셔츠에 사용된 색은 한국표준색표집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표 1>과 같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Sample	면색기호
빨강(red)	라이트(light)
	다크(dark)
노랑(yellow)	라이트(light)
	다크(dark)
파랑(blue)	라이트(light)
	다크(dark)
보라(purple)	라이트(light)
	다크(dark)

&lt;표 2&gt;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자극물은 칼라와 커프스가 있는 기본형의 긴소매로,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체크무늬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전체적으로 약간의 여유를 갖는 캐주얼 셔츠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셔츠는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준거집단과 제4차 한국표준체위예비조사(2003. 5)에 의해 가장 표준체형(키 162cm, 몸무게 52kg)에 가까운 마네킹에 착용시켰다. 이 때 자극물에 사용된 하의는 가능한 색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착용 빈도가 높은 검정색 바지로 하였으며, 마네킹의 체형, 자세, 배경은 일정하게 통제되었다(<표 2>).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photoshopCS3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체크무늬는 시장조사를 근거로 하여 평직으로 된 면직물로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평직의 조직 1칸을 1mm로 하여 무늬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모티브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 조합을 각각 다르게 하여 구성된 모티브를 define pattern으로 저장한 후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적당한 음영과 깨끗한 이미지로 조작한 셔츠 자극물 위에 레이아웃시켰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색표집에 준하여 색을 수정하여 최종 자극물을 HP Deskjet F735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성별 2가지(남자, 여자), 색상 4가지(빨강, 노랑, 파랑, 보라), 간격 4가지(0.5cm, 1.5cm, 3.5cm, 5.5cm)의 삼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총 16개의 자극물( $4 \times 4$ )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

하여 하나의 실험조합에 하나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는 실험조합별로 16명씩 피험자 간 설계에 의해 무선패치 되었다.

## 3) 의복이미지 척도

의복이미지 척도는 의복의 무늬와 배색에 관한 선행연구들<sup>(36)(37)(38)(39)(40)(41)</sup>에서 사용된 형용사 35쌍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원생)에 의해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형용사 28쌍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형용사 5쌍이 탈락하였으며, 최종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과 여러 요인에 걸쳐있는 문항을 제외한 형용사 21쌍이 도출되었다.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 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7단계로 평가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기도, 경남,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각각 1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9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과 Varimax

의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의복이미지의 요인별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자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그 결과 아이겐 값 1.0 이상으로 하여 21개의 형용사쌍들이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939, .910, .762, .762, .796으로 내적일관성있게 나타났다.

요인 1은 멋있는-멋없는, 세련된-촌스러운, 감각있는-감각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현대적인-고전적인, 매력있는-매력없는, 사교적인-비사교적인, 자연스러

운-어색한이 포함된 8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었고, 최수경과 정수진<sup>42)</sup>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나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눈에 띠는-무난한, 화려한-수수한, 강렬한-은은한, 대담한-섬세한, 독특한-평범한, 개성있는-개성없는으로 구성된 6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지영과 강경자<sup>43)</sup>의 현시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나 현시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따뜻한-차가운, 귀여운-노숙한, 부드러운-딱딱한이 포함된 3개의 형용사쌍들로 묶이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최수경과 강경자<sup>44)</sup>의 온유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4는 차분한-요란한, 단정한-단정하지 않은으로 2개의 형용사쌍들이 구성되어 정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신선한-오래된, 시원한-답답한으로 2개의 형용사쌍들이 도출되어 상쾌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에서 5개의 요인은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 정숙성, 상쾌함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요인은 점수가

<표 3>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

요인명	형용사쌍	요인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매력성	멋있는-멋없는	.852	8.005	38.120	38.120	.939
	세련된-촌스러운	.851				
	감각있는-감각없는	.848				
	보기좋은-보기싫은	.834				
	현대적인-고전적인	.825				
	매력있는-매력없는	.806				
	사교적인-비사교적인	.750				
	자연스러운-어색한	.654				
현시성	눈에 띠는-무난한	.883	3.295	15.693	53.813	.910
	화려한-수수한	.873				
	강렬한-은은한	.849				
	대담한-섬세한	.834				
	독특한-평범한	.666				
	개성있는-개성없는	.601				
온유성	따뜻한-차가운	.814	1.842	8.774	62.586	.762
	귀여운-노숙한	.756				
	부드러운-딱딱한	.724				
정숙성	차분한-요란한	.836	1.530	7.288	69.874	.762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819				
상쾌함	신선한-오래된	.808	1.071	5.102	74.976	.796
	시원한-답답한	.763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도출된 5개의 요인은 변수로 설정하여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미지 요인별로 이들 단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 2.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이들 단서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은 의복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의 영향력은 이미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미지 요인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매력성 이미지

매력성 요인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인들은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인인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은 체크무늬 의복의 매력성 이미지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단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일 색상 조합이 아닌 다른 배색방법이나 지각자 변인 등을 적용하여 체크무늬 의복에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현시성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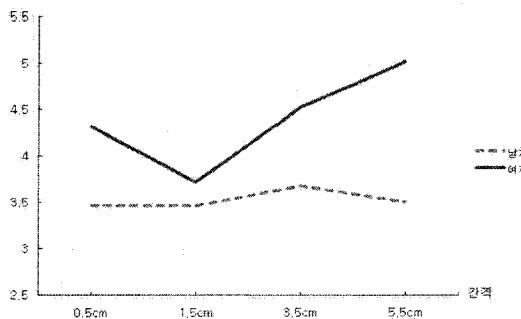
현시성 요인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간격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 성별은 독립적으로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별과 간격, 성별과 색상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성별의 평균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지각되어 현시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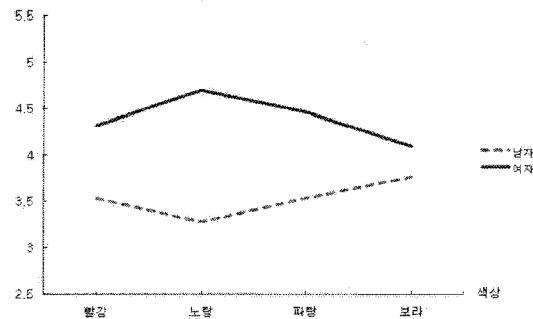
<표 4>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		정숙성		상쾌함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주 효 과	성별	1.934	1.241	72.483	46.939***	4.378	3.390	13.128	8.600**	15.042	8.349**
	간격	7.893	1.688	23.930	5.166**	38.005	9.810***	20.297	4.432**	91.721	16.970***
	색상	3.608	.772	.463	.100	4.149	1.071	5.120	1.118	11.023	2.040
상호 작용 효과	성별×간격	4.604	.985	19.187	4.142**	6.568	1.695	2.440	.533	28.307	5.237**
	성별×색상	8.189	1.751	19.411	3.111*	1.735	.448	2.003	.437	2.099	.388
	간격×색상	5.682	.405	12.748	.917	5.771	.497	5.271	.384	13.086	.807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성별	남자	3.434		3.527		3.554		3.846		3.534	
	여자	3.576		4.396		3.767		4.216		3.930	
간격	0.5cm	3.427		3.896 <sup>ab</sup>		3.823 <sup>b</sup>		3.766 <sup>a</sup>		3.182 <sup>a</sup>	
	1.5cm	3.332		3.590 <sup>a</sup>		4.076 <sup>b</sup>		4.297 <sup>b</sup>		3.448 <sup>ab</sup>	
	3.5cm	3.716		4.102 <sup>b</sup>		3.250 <sup>a</sup>		4.219 <sup>b</sup>		4.484 <sup>c</sup>	
	5.5cm	3.546		4.257 <sup>b</sup>		3.493 <sup>a</sup>		3.844 <sup>a</sup>		3.812 <sup>b</sup>	
색상	빨강	3.427		3.927		3.507		3.979		3.443	
	노랑	3.660		3.988		3.639		4.073		3.859	
	파랑	3.514		4.003		3.705		3.880		3.844	
	보라	3.419		3.792		3.792		4.193		3.781	

\*p<.05 \*\*p<.01 \*\*\*p<.001 a, b, c: Duncan-test



〈그림 1〉 현시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현시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색상의 상호작용효과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간격을 평균에서 보면 3.5cm와 5.5cm일 때 현시적인 이미지로 지각되므로 넓은 간격으로 이루어진 체크무늬는 눈에 띄고 대담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최수경 외<sup>45)</sup>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현시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서 보면 성별이 남자인 경우  $3.5\text{cm} > 5.5\text{cm} > 1.5\text{cm} > 0.5\text{cm}$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체크무늬의 간격에 따라 지각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성별이 여자인 경우  $5.5\text{cm} > 3.5\text{cm} > 0.5\text{cm} > 1.5\text{cm}$ 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지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남자에게는 체크무늬의 간격이 3.5cm에서, 여자에게는 5.5cm에서 가장 현시적인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체크무늬의 간격에 따라 성별 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평가함은 물론 지각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체크무늬의 간격이 5.5cm일 때는 남녀 간에 지각 차이를 크게 나타내어 동일한 간격이라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을 인지하는 감성차원이나 선호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 박영희<sup>46)</sup>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현시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2〉에서 보면 남자인 경우 보라>파랑>빨강>노랑의 순으로 높게 지각된 반면 여자인 경우 노랑>파랑>빨강>보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즉 체크무늬 의복의 색상으로 남

자에게는 보라가, 여자에게는 노랑이 눈에 띄고 대담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색상에 따라 여자는 남자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며, 노랑일 때 성별에 따라 지각 차이를 크게 나타내어 여자인 경우 가장 현시적인 이미지로, 남자인 경우 가장 현시적이지 않는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이와 같이 체크무늬 의복의 색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색상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이다.

### 3) 온유성 이미지

온유성 요인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간격만이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간격을 평균에서 보면 0.5cm와 1.5cm 보다 3.5cm와 5.5cm일 때 더 따뜻하고 귀엽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대체로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있어서 온유성 요인은 색상이나 톤 즉, 색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sup>47)48)</sup>과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동일 색상 조합이 무난하고 고유한 통일감을 살릴 수 있으나 단조로움을 줄 수 있는 배색이므로<sup>49)</sup> 색상보다 간격의 변화가 온유한 이미지를 지각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동일 색상 조합으로 구성된 체크무늬 의복은 체크무늬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온유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정숙성 이미지

정숙성 요인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간격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성별을 평균에서 보면 남자일 때 단정하지 않고 요란한 이미지로, 여자일 때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간격을 평균에서 보면 0.5cm와 5.5cm일 때 정숙하지 않는 이미지로, 1.5cm와 3.5cm일 때 정숙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체크무늬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넓은 것보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5) 상쾌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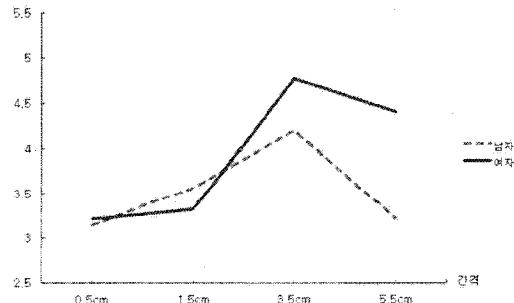
상쾌함 요인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성별과 간격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여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성별의 평균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는 동일 간격과 색상을 가진 체크무늬 의복을 신선하고 시원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간격을 평균에서 보면  $3.5cm > 5.5cm > 1.5cm > 0.5cm$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체크무늬의 간격이 5.5cm보다 적당하게 큰 3.5cm일 때 가장 상쾌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즉 체크무늬의 간격이 3.5cm보다 크면 시원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쾌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남자인 경우 체크무늬의 간격이  $3.5cm > 1.5cm > 5.5cm > 0.5cm$ 의 순으로, 여자인 경우  $3.5cm > 5.5cm > 1.5cm > 0.5cm$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체크무늬 간격이 3.5cm에서 가장 상쾌한 이미지로, 0.5cm에서 가장 상쾌하지 않는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0.5cm, 3.5cm, 5.5cm일 때는 여자가, 1.5cm일 때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0.5cm와 1.5cm는 성별 간에 거의 지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체크무늬의 간격에 따라 남녀 간에는 지각 차이를 보여 상쾌한 이미지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체크무늬의 간격과 함께 지각자의 성별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림 3> 상쾌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

## V. 결론

본 연구는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을 분석하고,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매력성 이미지, 현시성 이미지, 온유성 이미지, 정숙성 이미지, 상쾌함 이미지로 5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둘째,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 매력성 이미지는 독립변인들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체크무늬 의복의 매력성 이미지를 지각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서를 밝힐 필요가 있다.

현시성 이미지는 주효과에서 성별과 간격이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 성별과 간격, 성별과 색상간에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지각자 성별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므로 현시성 이미지를 지각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효과에서 성별과 간격은 여자이고 3.5cm와 5.5cm

일 때 대답하고 화려하고 개성있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성별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남자는 체크무늬의 간격이 3.5cm에서, 여자는 5.5cm에서 가장 눈에 띠고 강렬하고 독특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남자인 경우 지각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 반면 여자인 경우 지각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었으며, 모든 간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성별과 색상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남자인 경우 보라를, 여자인 경우 노랑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남자인 경우 노랑을, 여자인 경우 보라를 가장 낮게 평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모든 색상에서 여자는 긍정적인 평가로, 남자는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나 동일 색상으로 배색된 체크무늬 의복은 남자에게 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온유성 이미지는 독립변인 중 간격만이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간격은 0.5cm와 1.5cm 보다 3.5cm와 5.5cm일 때 온유한 이미지를 나타내어 체크무늬의 간격 변화에 따라 온유한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정숙성 이미지는 성별과 간격이 주효과에서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상호작용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주효과에서 성별과 간격은 여자이고 1.5cm와 3.5cm일 때 차분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나타나 체크무늬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넓은 것보다 적당한 간격으로 된 의복이 정숙한 이미지로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상쾌함 이미지는 성별과 간격이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효과에서 성별과 간격은 여자이고 3.5cm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남녀 모두 체크무늬의 간격이 3.5cm인 경우 가장 상쾌한 이미지로, 0.5cm인 경우 가장 상쾌하지 않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체크무늬의 간격에 따라 성별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에 따른 의복 이미지의 요인은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 정숙성, 상쾌함으로 도출되어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지각자 성별,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간격은 주효과에서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체크무늬 의복을 지각하는 데 지배적인 단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크무늬로 된 의복이미지는 지각자 성별과 체크무늬의 색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기도 하지만 성별이나 색상보다 간격에 의한 영향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각자를 남녀대학생으로 편의 축출하였고, 의복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체크무늬의 간격과 색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무늬의 종류나 색상과 톤, 지각자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다각도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pp. 963-965.
- 2) 이호정 (2000).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p. 116-125.
- 3) 김선미, 강경자 (2007). 물방울패턴이 원피스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무채색 배색을 중심으로 -.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p. 407.
- 4) 김유현 (2003). 체크직물의 색채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
- 5) 정혜정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크 패턴 연구. *복식*, 52(2), pp. 31-44.
- 6) 남기선, 한명숙 (2004). 성격유형에 따른 복식문양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1), pp. 59-72.
- 7) 박영희 (2004).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복식*, 54(4), pp. 113-127.
- 8)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2009). 체크패턴의 폭과 색채 조합에 따른 넥타이의 감성이미지 연구. *감성과학*, 12(4), pp. 545-556.
- 9) 이소라, 김재숙 (2007). 의복의 문양에 따른 의복 및 직물 선호-포카닷트, 스트라이프, 체크 문양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2), pp. 193-202.
- 10) 박영희. 앞의 논문, pp. 113-127.
- 11) 임지영, 강경자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pp. 753-768.
- 12) 최은영 (1995).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격자무늬와 물방울무늬를

- 중심으로-. 복식. 24, pp. 193-203.
- 13) 최수경, 정수진 (2008). 메이크업과 의복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따른 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2), pp. 355-366.
  - 14)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82.
  - 15) 이명희, 최유진 (2007). 셔츠와 베타이의 배색에 대한 시각적 평가 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pp. 982-995.
  - 16) 이현화, 박찬부 (1998).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의 여자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Ⅱ): 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 37, pp. 119-132.
  - 17)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 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pp. 111-122.
  - 18) 박영희. 앞의 논문, pp. 113-127.
  - 19) 이순임, 김재숙 (2006). 모시 소재의 문양에 따른 감성 이미지 평가. *복식문화연구*, 14(6), pp. 1015-1026.
  - 20) 이은영 (1996).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 199.
  - 21) 박금옥 (1996).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9-50.
  - 22) 이소라 (2008). 문양에 따른 소재의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복식문화연구*, 16(5), pp. 841-851.
  - 23) 이소라, 김재숙. 앞의 논문, pp. 193-202.
  - 24) 최은영. 앞의 논문, pp. 193-203.
  - 25) 이승현, 이경희 (2009). 남성복 캐쥬얼 브랜드 무늬셔츠에 대한 패션감성과 소비감성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3(3), pp. 444-456.
  - 26) 이호정. 앞의 책, pp. 116-125.
  - 27) 김선미, 강경자 (2007). 물방울패턴이 원피스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무채색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pp. 407-419.
  - 28) 김월순, 김은희, 이언영 (2004).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예림, pp. 126-127.
  - 29) 권혜숙, 심은아 (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나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pp. 139-152.
  - 30)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1.
  - 31) 주소현,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표현된 색채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26, p. 29.
  - 32) 강경자, 정복남, 정수진 (2004). 치마·저고리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이미지 지각.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2), pp. 39-50.
  - 33) 임지영, 강경자 (2006). 셔츠와 베타이의 동일색상 톤 조합에 따른 인상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pp. 1-16.
  - 34) 권혜숙, 심은아. 앞의 논문, pp. 139-152.
  - 35) 임지영, 강경자. 앞의 논문, pp. 1-16.
  - 36)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앞의 논문, p. 550.
  - 37)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앞의 논문, p. 360.
  - 38) 이소라, 김재숙. 앞의 논문, p. 197.
  - 39) 임지영, 강경자. 앞의 논문, p. 5.
  - 40) 박영희. 앞의 논문, p. 119.
  - 41) 최은영. 앞의 논문, p. 196.
  - 42) 최수경, 정수진. 앞의 논문, p. 360.
  - 43) 임지영, 강경자. 앞의 논문, p. 5.
  - 44)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4), p. 466.
  - 45)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앞의 논문, p. 550.
  - 46) 박영희. 앞의 논문, pp. 113-127.
  - 47)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pp. 395-406.
  - 48) 최수경, 강경자. 앞의 논문, pp. 459-473.
  - 49) 권혜숙, 심은아. 앞의 논문, pp. 139-152.